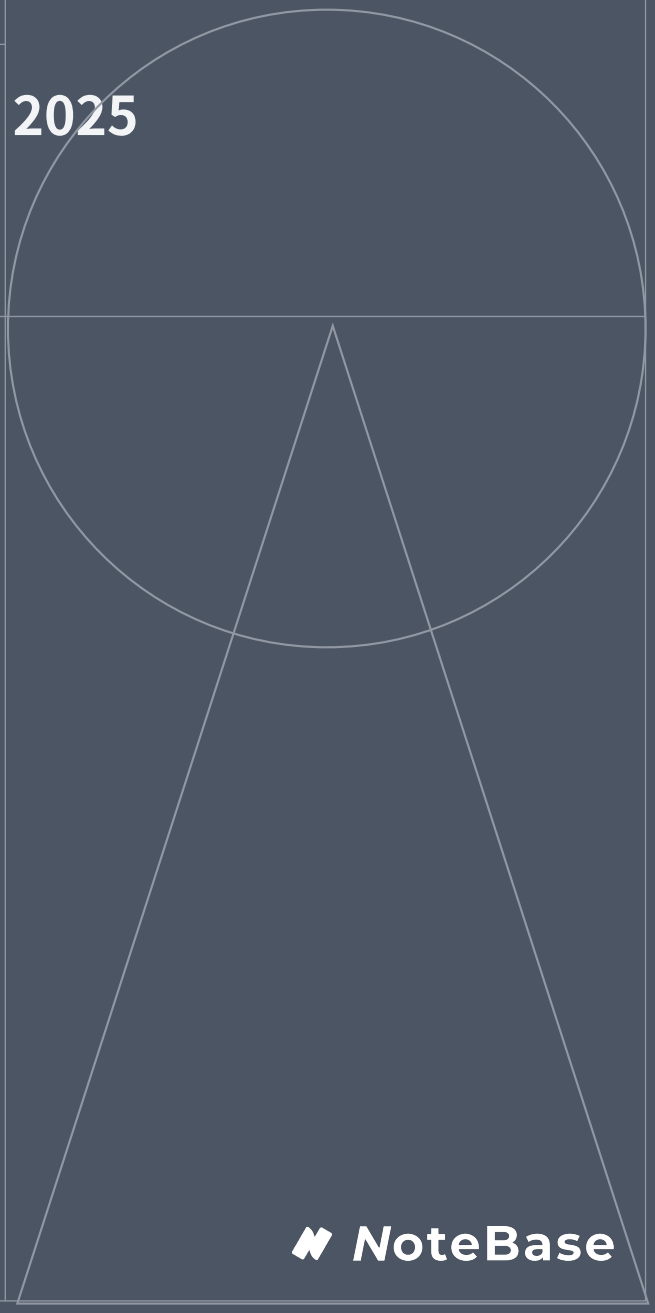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5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5

1. 올바른 표준어 표기로만 묶인 것은?

   ① 설거지, 자장면, 초생달

   ② 등굣길, 삭월세, 무릎팍

   ③ 멍게, 바짓가랭이, 반짇고리

   ④ 짬뽕, 꼬깔모자, 떡만둣국

   ⑤ 최댓값, 귀이개, 우렁쉥이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여러 단어 가운데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구별하고, 비표준 형태를 올바른 표준어로 고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원칙으로 하여 정한 말이다. 익숙하게 들리는 형태라도 표준어가 아닐 수 있으며, 뜻이 같은 두 형태가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설거지’와 ‘자장면’은 표준어이지만, ‘초생달’은 비표준어이다. 틀린 표현 ‘초생달’은 ‘초승달’로 고쳐야 한다.

② X
- ‘등굣길’은 표준어이지만, ‘삭월세’와 ‘무릎팍’은 비표준어이다. ‘삭월세’는 ‘사글세’로, ‘무릎팍’은 ‘무르팍’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멍게’는 표준어이지만, ‘바짓가랭이’와 ‘반질고리’는 비표준어이다. ‘바짓가랭이’는 ‘바짓가랑이’로, ‘반질고리’는 ‘반짇고리’로 고쳐야 한다.

④ X
- ‘짬뽕’과 ‘떡만둣국’은 표준어이지만, ‘꼬깔모자’는 비표준어이다. ‘꼬깔모자’는 ‘고깔모자’로 고쳐야 한다.

⑤ O
- ‘최댓값’, ‘귀이개’, ‘우렁쉥이’는 모두 표준어이다. 따라서 올바른 표준어 표기로만 묶인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초생달’, ‘무릎팍’, ‘바짓가랭이’, ‘꼬깔모자’처럼 일상에서 자주 듣는 형태를 표준어로 착각하기 쉽다. 또한 ‘최댓값’의 사이시옷이나 ‘귀이개’의 연속된 모음을 어색하다고 보고 임의로 고치면 ⑤를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단어를 하나씩 독립적으로 판별한다. 한 단어라도 비표준어가 섞여 있으면 그 선지를 제외하고, 자주 쓰이는 발음이 아니라 규범상 인정된 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초승달·무르팍·바짓가랑이·반짇고리·잠방이·고깔모자가 표준어이며, 최댓값·귀이개·우렁쉥이는 적힌 형태 그대로 표준어이다.

NoteBase

2.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 그는 설움에 (㉠) 울음을 터뜨렸다.
> ○ 마을 이장이 소에게 (㉡) 꼼짝을 못한다.
> ○ 신에게 제물을 (㉢) 우리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 ○ 아가씨들이 양산을 (㉣) 들고 거리를 거닐고 있다.

	㉠	㉡	㉢	㉣
①	받쳐	받혀	바쳐	받쳐
②	받쳐	받쳐	바쳐	받혀
③	받쳐	받혀	바쳐	받혀
④	바쳐	받쳐	받혀	바쳐
⑤	바쳐	받혀	받쳐	바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맥에 따라 ‘받치다’, ‘받히다’, ‘바치다’를 구별하고 각각의 활용형을 정확히 쓰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받치다: 물건의 밑이나 안쪽에 다른 물체를 대거나, 우산·양산 등을 펴서 들거나, 감정이 세차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나타낸다. 활용형은 ‘받쳐’이다.
받히다: ‘받다’의 피동사로, 머리나 뿔로 들이받음을 당한다는 뜻이다. 활용형은 ‘받혀’이다.
바치다: 신이나 웃어른에게 물건을 드리거나 어떤 대상에 정성·목숨 등을 내놓는다는 뜻이다. 활용형은 ‘바쳐’이다.
따라서 ㉠ 설움에 받쳐, ㉡ 소에게 받혀, ㉢ 제물을 바쳐, ㉣ 양산을 받쳐 들고가 알맞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 ‘받쳐’, ㉡ ‘받혀’, ㉢ ‘바쳐’, ㉣ ‘받쳐’가 모두 문맥에 맞다. 설움은 ‘받치고’, 소에게는 ‘받히며’, 제물은 ‘바치고’, 양산은 ‘받쳐 든다’.
② X — ㉡의 ‘받쳐’와 ㉣의 ‘받혀’가 틀렸다. 소가 들이받는 동작을 당하는 것이므로 ㉡은 ‘받혀’, 양산을 펴서 드는 것이므로 ㉣은 ‘받쳐’가 맞다. 올바른 배열은 ‘받쳐-받혀-바쳐-받쳐’이다.
③ X — ㉣의 ‘받혀’가 틀렸다. ‘받혀’는 들이받음을 당할 때 쓰며, 양산을 펴서 드는 경우에는 ‘받쳐’가 맞다. 올바른 배열은 ‘받쳐-받혀-바쳐-받쳐’이다.
④ X — 네 표현이 모두 문맥에 맞지 않는다. 설움은 ‘받쳐’, 소에게는 ‘받혀’, 제물은 ‘바쳐’, 양산은 ‘받쳐’라고 해야 한다. 올바른 배열은 ‘받쳐-받혀-바쳐-받쳐’이다.
⑤ X — ㉠의 ‘바쳐’, ㉢의 ‘받쳐’, ㉣의 ‘바쳐’가 틀렸다. 설움은 ‘받쳐’, 제물은 ‘바쳐’, 양산은 ‘받쳐’라고 해야 한다. 올바른 배열은 ‘받쳐-받혀-바쳐-받쳐’이다.

오답 포인트

세 단어의 발음과 활용형이 비슷하다는 점이 함정이다. 특히 ‘소에게’처럼 들이받음을 당하는 문맥은 피동사 ‘받히다’의 활용형 ‘받혀’이고, ‘제물을’처럼 드리는 문맥은 ‘바치다’의 활용형 ‘바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맥을 ‘치밀어 오르거나 펴서 듦’, ‘들이받음을 당함’, ‘드림’으로 나눈다. 각각 ‘받쳐’, ‘받혀’, ‘바쳐’를 대응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설움·양산은 받쳐, 소에게는 받혀, 제물은 바쳐이다.

NoteBase

3. 문장 성분의 호응이 적절한 것은?

① 들에 핀 장미꽃이 여간 탐스럽다.
② 날씨가 흐려지더니 비와 바람이 불었다.
③ 오해의 소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⑤ 건강을 위해서는 바른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조사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이 자연스러운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장 성분의 호응은 한 성분이 다른 성분과 문법적·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관계이다.
부사어는 알맞은 서술 표현과 짝을 이루어야 하고, 주어나 목적어에 붙는 조사도 뒤의 서술어가 요구하는 형태와 맞아야 한다. 병렬된 성분은 각각의 서술어와 모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여간'은 보통 '않다', '아니다'와 같은 부정 표현과 호응하여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낸다. '여간 탐스럽다'가 잘못되었으며, '들에 핀 장미꽃이 여간 탐스럽지 않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비와 바람이 불었다'에서는 서술어 '불었다'가 '바람'과는 호응하지만 '비'와는 호응하지 않는다. '날씨가 흐려지더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오해의 소지를 발생하지'는 목적격 조사 '를'과 자동사 '발생하다'가 호응하지 않는다.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또는 '오해의 소지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지배하다'는 '자연을'과 호응하지만 '복종하다'는 대상에 부사격 조사 '에'를 요구한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연에 복종하기도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⑤ O — '바른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이 주격 조사 '이'로 묶여 서술어 '필요하다'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④는 앞부분만 읽으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하나의 표현이 병렬된 두 성분과 모두 호응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비가 불다'와 '자연을 복종하다'처럼 뒤쪽 결합에서 드러나는 어색함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사어와 서술어의 짝을 먼저 확인하고, 각 명사에 붙은 조사가 서술어의 성격과 맞는지 살핀다. ‘A와 B가 C하다’처럼 성분이 병렬되면 A-C와 B-C를 각각 연결하여 두 결합이 모두 자연스러운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여간’은 부정 표현과 짝을 이루고, ‘비는 내리며 바람은 분다’. ‘지배하다’는 ‘을/를’, ‘복종하다’는 ‘에’와 호응한다.

NoteBase

4. 다음 글의 ㉠이 동일한 단모음이 쓰인 단어끼리 묶인 것은?

> 단모음은 자음과는 달리 조음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과정이 없다. 따라서 분류 기준도 자음과는 다르게 설정해야만 한다. 전통적으로는 혀의 최고점 위치와 입술 모양을 통해 단모음을 분류해 왔다. 이 중 혀의 최고점 위치는 전후 위치와 상하 높이로 세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과적으로 단모음은 혀의 전후 위치와 높이, ㉠입술 모양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대구, 제고
② 나름, 너울
③ 달빛, 더위
④ 가게, 기차
⑤ 고국, 우애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단모음을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분류하고, 단어에 쓰인 단모음의 입술 모양이 모두 동일한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평순 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단모음이며, ㅣ·ㅔ·ㅐ·ㅡ·ㅓ·ㅏ가 이에 해당한다.
원순 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단모음이며, ㅟ·ㅚ·ㅜ·ㅗ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단어의 모음을 하나씩 확인하여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이 섞여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대구’의 ㅐ는 평순 모음이고 ㅜ는 원순 모음이며, ‘제고’의 ㅔ는 평순 모음이고 ㅗ는 원순 모음이다. 두 단어 모두 입술 모양이 다른 단모음이 섞여 있다. 틀린 판단인 ‘입술 모양이 동일하다’는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이 함께 쓰였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나름’의 ㅏ·ㅡ는 모두 평순 모음이지만, ‘너울’에는 평순 모음 ㅓ와 원순 모음 ㅜ가 함께 쓰였다. 틀린 부분은 두 단어의 단모음이 모두 같은 입술 모양이라는 판단이며, ‘나름은 평순 모음으로만 이루어지고 너울은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이 섞였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달빛’의 ㅏ·ㅣ는 모두 평순 모음이지만, ‘더위’에는 평순 모음 ㅓ와 원순 모음 ㅟ가 쓰였다. 틀린 부분은 ‘더위’의 모음도 모두 평순 모음으로 보는 것이며, ‘더위에는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이 함께 쓰였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가게’의 ㅏ·ㅖ와 ‘기자’의 ㅣ·ㅏ는 모두 입술을 둥글게 하지 않는 평순 모음이다. 두 단어에 쓰인 모든 단모음의 입술 모양이 동일하다.
⑤ X — ‘고국’의 ㅗ·ㅜ는 모두 원순 모음이지만, ‘우애’에는 원순 모음 ㅜ와 평순 모음 ㅐ가 함께 쓰였다. 틀린 부분은 두 단어의 단모음이 모두 원순 모음이라는 판단이며, ‘고국은 원순 모음으로만 이루어지고 우애는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이 섞였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한 단어에서 눈에 띄는 모음 하나만 확인하면 ②·③·⑤를 고르기 쉽다. 특히 ㅟ는 전통적인 단모음 체계에서 원순 모음이므로, ‘더위’의 ㅓ와 ㅟ는 입술 모양이 서로 다르다. 모든 단어의 모든 모음을 빠짐없이 분류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이 ‘입술 모양’임을 확인한 뒤, 각 단어의 단모음을 평순과 원순으로 표시한다. 한 쌍에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이 하나라도 섞이면 제외하고, 모든 단모음이 같은 부류인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평순은 ㅣ·ㅔ·ㅐ·ㅡ·ㅓ·ㅏ, 원순은 ㅟ·ㅚ·ㅜ·ㅗ이다. 가게·기자의 모음은 모두 평순이다.

NoteBase

5. 밑줄 친 단어의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① 치아가 상실되면 브리지를 걸치거나 틀니를 시술하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② 지역 축제를 알리는 플랜카드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려 있다.

③ ○○협회는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에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④ 이 지역은 메타세콰이어 길이 유명하다.

⑤ 총괄 감독은 이번 공연의 컨셉트를 '자유'라고 설명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외래어를 관용적인 발음이나 익숙한 형태가 아니라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적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 표기는 원어의 발음을 국어의 음운과 표기 체계에 따라 옮긴 표준 표기이다. 이 문제에서는 브리지, 플래카드, 튀르키예, 메타세쿼이아, 콘셉트의 표준 표기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브리지'는 영어 'bridge'를 옮긴 올바른 표기이다. 따라서 '브리지를 걸치거나'의 표기가 맞다.
② X — 틀린 표현은 '플랜카드'이다. 올바른 표기는 '플래카드'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튀르키에'이다. 올바른 국명 표기는 '튀르키예'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메타세콰이어'이다. 올바른 표기는 '메타세쿼이아'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컨셉트'이다. 올바른 표기는 '콘셉트'이다.

오답 포인트

'플랜카드', '메타세콰이어', '컨셉트'는 일상에서 들을 수 있어 표준 표기로 착각하기 쉽다. 또한 ③은 국명의 마지막 음절을 '에'로 적은 부분이 함정이며, 표준 표기는 '튀르키예'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소 자주 듣는 발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단어의 표준 표기를 통째로 대조한다. 특히 플래카드의 '래', 튀르키예의 '예', 메타세쿼이아의 '쿼이아', 콘셉트의 '콘셉'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브리지·플래카드·튀르키예·메타세쿼이아·콘셉트가 표준 표기이다.

NoteBase

6. 다음은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이다. 이를 근거로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단어들은 띄어 쓴다.
>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을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교정	설명
① 집 밖에 누구도 없었다.	'밖에'는 주로 부정하는 말과 어울려 쓰는 보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앞말과 붙여 쓴다.
② 그가 떠난지 닷새가 지났다.	'지'가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제42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쓴다.
③ 노래 한번 잘한다.	'번'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과 [제43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쓴다.
④ 사과하고 귤이면 충분해.	'하고'는 두 말을 이어주는 단어이므로 [제45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쓴다.
⑤ 그의 성은 박씨이다.	'씨'는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칭어이므로 [제48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조사·의존 명사·부사·접속 조사의 문법적 지위를 구별하여 앞말과 붙여 쓸지 띄어 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같은 형태라도 문장에서 맡는 기능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진다. ‘밖에’가 보조사이면 앞말에 붙지만, ‘바깥’이라는 뜻의 명사 ‘밖’에 조사 ‘에’가 붙은 구성이면 앞말과 띄어 쓴다. ‘지’가 어떤 일이 일어난 뒤의 경과 시간을 나타내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한번’이 횟수인 ‘한 번’이 아니라 강조하는 부사이면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교정문 ‘집 밖에 누구도 없었다.’의 띄어쓰기는 맞지만, 설명의 ‘밖에는 보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가 틀렸다. 여기서 ‘밖’은 ‘집의 바깥’을 뜻하는 명사이고 ‘에’는 조사이므로 ‘집 밖에’로 띄어 쓴다. 틀린 설명 → 올바르게는 ‘명사 밖은 앞말 집과 띄고, 조사 에는 밖에 붙여 쓴다’이다.

② O
‘지’는 그가 떠난 뒤 닷새라는 시간이 경과했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는 띄어 쓰므로 ‘떠난 지’가 맞고, 제42항을 적용한 설명도 옳다.

③ X
교정문 ‘노래 한번 잘한다.’는 맞지만, 설명에서 ‘번’을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본 것이 틀렸다. 이 문장의 ‘한번’은 노래를 매우 잘한다는 뜻을 강조하는 부사이므로 붙여 쓴다. 틀린 설명 → 올바르게는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한번이므로 붙여 쓴다’이다.

④ X
‘사과하고 귤’의 ‘하고’는 두 명사를 잇는 접속 조사이므로 앞말 ‘사과’에 붙여 쓴다. 교정문 ‘사과하고 귤이면 충분해.’는 맞지만, 설명의 ‘하고는 앞말과 띄어 쓴다’가 틀렸다. 틀린 설명 → 올바르게는 ‘접속 조사 하고는 앞말에 붙여 쓴다’이다.

⑤ X
‘박씨’의 ‘씨’는 이 문장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어가 아니라 성씨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박씨’로 붙여 쓴다. 교정문은 맞지만 제48항의 호칭어 규정을 적용하여 ‘박 씨’로 띄어 쓴다는 설명이 틀렸다. 틀린 설명 → 올바르게는 ‘성씨를 나타내는 박씨는 붙여 쓴다’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는 교정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의 설명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 ①·③·④·⑤는 제시된 교정문 자체는 맞지만, 해당 형태의 문법적 지위를 잘못 분석하거나 실제 교정과 반대되는 띄어쓰기 설명을 붙여 놓았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형태가 조사이면 앞말에 붙이고 의존 명사이면 띄어 쓴다. 이어서 교정 결과와 설명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밖에’, ‘지’, ‘한번’, ‘하고’, ‘씨’는 겉모양만 보지 않고 문장 속 뜻과 기능을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조사는 붙이고 의존 명사는 띄운다. ‘떠난 지’의 경과 시간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NoteBase

7. 문맥상 ㉠과 ㉡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옳은 것은?

> ○ 덕이 아니라 힘으로써 사람을 따르게 하면 (㉠)하여 겉과 달리 내심으로 배반하는 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 ○ 그는 가늘지만 길게 (㉡)의 자세로 사는 것이 소시민의 처세 방법이라고 말한다.

	㉠	㉡
①	면종복배(面從腹背)	무골호인(無骨好人)
②	면종복배(面從腹背)	함포고복(含哺鼓腹)
③	교언영색(巧言令色)	함포고복(含哺鼓腹)
④	백수북면(白首北面)	무골호인(無骨好人)
⑤	교언영색(巧言令色)	상산구어(上山求魚)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드러난 행동과 태도의 의미를 한자성어의 뜻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면종복배(面從腹背): 겉으로는 따르면서 속으로는 배반한다는 뜻이다. 키워드는 '겉으로 복종, 속으로 배반'이다.
무골호인(無骨好人): 줏대나 기개가 없이 그저 순하고 좋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키워드는 '줏대 없이 순함'이다.
교언영색(巧言令色): 남의 환심을 사려고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보기 좋게 꾸민다는 뜻이다.
함포고복(含哺鼓腹):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먹고사는 걱정 없이 태평한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이른다.
백수북면(白首北面): 늙어서도 스승에게 배우는 일을 뜻한다.
상산구어(上山求魚): 산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방법이나 방향이 잘못되어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이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의 '겉으로 따르지만 속으로 배반함'은 면종복배이고, ㉡의 '가늘지만 길게 살려는 줏대 없는 태도'는 무골호인이다. 두 성어가 모두 문맥에 맞는다.
② X — ㉠의 면종복배는 맞지만 ㉡의 '함포고복'이 틀렸다. 함포고복은 태평한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므로, ㉡은 무골호인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의 '교언영색'과 ㉡의 '함포고복'이 모두 틀렸다. 교언영색은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며 아첨하는 태도이며, 함포고복은 태평한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다. 올바르게는 ㉠ 면종복배, ㉡ 무골호인이다.
④ X — ㉡의 무골호인은 맞지만 ㉠의 '백수북면'이 틀렸다. 백수북면은 늙어서도 스승에게 배우는 일이므로, ㉠은 면종복배로 고쳐야 한다.
⑤ X — ㉠의 '교언영색'과 ㉡의 '상산구어'가 모두 틀렸다. 교언영색은 아첨하는 말과 꾸민 얼굴빛을 뜻하고, 상산구어는 잘못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는 일을 뜻한다. 올바르게는 ㉠ 면종복배, ㉡ 무골호인이다.

오답 포인트

㉠의 '겉으로 따름'만 보고 아첨을 뜻하는 교언영색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문장의 핵심은 '겉으로 따르면서 속으로 배반한다'는 겉과 속의 대립이므로 면종복배이다. ㉡도 '가늘지만 길게'라는 말만 보지 말고, 기개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의 태도라는 점에서 무골호인을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장에서 서로 대비되는 핵심 표현을 찾는다. '겉으로 따름 ↔ 속으로 배반함'이면 면종복배, '줏대나 기개 없이 순하게 처신함'이면 무골호인으로 판단한다. 조합형 선지는 두 빈칸을 각각 확정한 뒤 모두 일치하는 선택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면종복배는 얼굴로 따르고 배 속으로 배반하며, 무골호인은 뼈대처럼 굳은 줏대가 없는 좋은 사람이다.

NoteBase

8.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 나는 시인이 못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 서울역 앞을 걸었다.
> 저녁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 그런 사람들이
> 엄청난 고생 되어도
>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 그런 사람들이
>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 고귀한 인류이고
> 영원한 광명이고
>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
> –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① 구체적 장소를 제시하여 현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도치와 반복을 사용하여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③ 일상적인 체험을 초월한 시인의 예술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④ 진실하고 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예찬하고 있다.
⑤ 물음과 그 물음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방식을 근거로 시상 전개와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시는 '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서울의 구체적 장소와 서민들의 삶을 떠올린 뒤, 고생 속에서도 순하고 인정 있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곧 시인이라는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즉 시의 가치를 일상을 초월한 특별한 예술 능력이 아니라 일상 속 사람들의 선한 삶에서 찾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 앞', '남대문 시장'처럼 실제 서울의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여 시적 상황에 현실감을 부여한다.

② O — '그런 사람들이'를 반복하고, '알파이고 / 고귀한 인류이고 / 영원한 광명이고'와 같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거듭하여 핵심 대상을 강조한다. 또한 '나는 … 생각나고 있었다' 뒤에 생각의 구체적 내용을 놓는 도치적 구성을 통해 시인이 내린 결론을 부각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일상적인 체험을 초월한 시인의 예술적 능력'이다. 화자는 자신을 '시인이 못되므로 잘 모른다'고 낮추며, 서울 거리를 걷고 남대문 시장에서 빈대떡을 먹던 일상적 체험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 자체가 시라고 말한다. 올바르게는 '일상적 체험 속에서 발견한 평범한 사람들의 선하고 인정 넘치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이다.

④ O — 화자는 고생하면서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즐기롭게 사는 사람들'을 '고귀한 인류', '영원한 광명', '시인'이라고 높여 진실하고 착한 삶을 예찬한다.

⑤ O — '시가 뭐냐'는 물음으로 시작한 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서울 거리와 서민들의 삶을 회상하며, 마침내 '다름 아닌 시인'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사고 과정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시인이 시의 본질을 말한다는 점을 '특별한 예술적 능력의 강조'로 바꾼 선지이다. 그러나 이 시의 핵심은 특별한 시인이 아니라 고생 속에서도 선하고 인정 있게 살아가는 일상의 사람들이 곧 시인이라는 인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의 설명을 판단할 때에는 화자가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과 시상의 출발점을 함께 확인한다. 이 작품에서는 구체적 서울 거리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시상의 근거이므로, 이를 초월적 예술 능력으로 바꾸는 설명은 틀린다.

암기 포인트

구체적 서울 공간 → 서민의 일상 회상 → 선하고 인정 있는 사람들이 곧 시인이라는 깨달음이다.

NoteBase

9. ㉠~㉣을 활용하여 음운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음운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것을 음운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말의 음운 현상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 ㉠ 교체: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
> ㉡ 탈락: 본디의 음운이 사라지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
> ㉢ 첨가: 본디 없었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
>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① '맑지[막찌]'에는 ㉠과 ㉡의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② '꽃잎[꼰닙]'에는 ㉠과 ㉢의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③ '잡혀[자펴]'에는 ㉠과 ㉣의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④ '색연필[생년필]'에는 ㉠과 ㉢의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⑤ '굳히다[구치다]'에는 ㉠과 ㉣의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표기와 발음을 비교하여 교체·탈락·첨가·축약 가운데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고, 탈락은 본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이다. 첨가는 본래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이고,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이 문제에서는 변동의 결과만 보지 않고 중간 과정을 순서대로 나누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맑지[막찌]’에서는 겹받침 ‘ㄺ’의 ‘ㄹ’이 없어지는 탈락이 일어나고, 이어 ‘ㅈ’이 ‘ㅉ’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인 교체가 일어난다. 따라서 ㉠ 교체와 ㉡ 탈락이 모두 나타난다.

② O — ‘꽃잎[꼰닙]’에서는 합성어 경계에서 ‘ㄴ’이 새로 생기는 첨가가 일어난다. 또한 받침 ‘ㅊ’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고, 그 ‘ㄷ’이 뒤의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따라서 ㉠ 교체와 ㉢ 첨가가 모두 나타난다.

③ X — ‘잡혀[자펴]’에서는 ‘ㅂ’과 ‘ㅎ’이 합쳐져 ‘ㅍ’이 되는 축약만 일어난다. 틀린 표현은 ‘㉠과 ㉣’이며, 올바르게는 ‘㉣의 음운 현상만 일어난다’이다.

④ O — ‘색연필[생년필]’에서는 ‘ㄴ’이 첨가되어 ‘색년필’이 되고, 이어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인 교체가 일어난다. 따라서 ㉠ 교체와 ㉢ 첨가가 모두 나타난다.

⑤ O — ‘굳히다[구치다]’에서는 ‘ㄷ’과 ‘ㅎ’이 합쳐져 ‘ㅌ’이 되는 축약이 먼저 일어나고, ‘ㅌ’이 ‘ㅣ’ 앞에서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인 교체가 이어진다. 따라서 ㉠ 교체와 ㉣ 축약이 모두 나타난다.

오답 포인트

③의 ‘ㅂ+ㅎ→ㅍ’을 두 단계의 변동으로 잘못 나누기 쉽다. 두 음운이 하나의 ‘ㅍ’으로 합쳐지는 과정 자체가 축약이며, ‘잡혀[자펴]’에는 그 뒤에 별도의 교체가 없다. 반면 ⑤는 ‘ㄷ+ㅎ→ㅌ’의 축약 뒤에 ‘ㅌ→ㅊ’의 교체가 실제로 이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기형에서 발음형으로 바뀌는 과정을 한 단계씩 적는다. 음운의 수가 줄면 탈락이나 축약인지 살피고, 없던 음운이 생기면 첨가, 음운 수는 유지된 채 다른 음운이 되면 교체로 판단한다.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졌다면 축약으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맑지=탈락+교체, 꽃잎·색연필=첨가+교체, 잡혀=축약, 굳히다=축약+교체이다.

NoteBase

1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만약 누군가 자신은 공중 부양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고 하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할 수 없고 혼자 있을 때만 된다.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과학적이지는 않다. 보편적으로 재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뉴턴의 중력이론에 따르면 지구 표면에서 모든 물체는 1초에 4.9미터 낙하한다. 이것은 지구상 모든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그러하다. 오늘 해 봐도, 내일 해 봐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에서 뉴턴의 이론은 과학적이다. 바로 이런 속성 때문에 과학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론이 되었다고 믿는다. 요즘은 모두가 자신의 주장이 과학적이라 불리기를 바란다. 많은 학문 분야가 자신의 이름에 '과학'을 넣으려는 것도 비슷한 이유이다.
>
> 과학의 재현 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예측 가능성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의 이론이라도, 실험 결과가 예측한 것과 다르면 그의 이론은 폐기된다.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뉴턴이지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서 그의 이론은 잘못된 예측을 내놓는다. 특허청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이라도, 그의 이론이 재현 가능한 예측을 내놓는다면 그가 맞는 거다. 그가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그래서인지 물리학자들은 권위주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이론이 옳다면 재현 가능한 증거를 보이면 그만인 것이다. 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모른다고 말하며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과학적인 자세이다.

① 과학은 보편적으로 재현 가능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다.
② 모름을 인정하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도 과학적인 자세로 볼 수 있다.
③ 뉴턴의 이론도 예측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폐기될 수 있다.
④ 혼자 있을 때만 성공하는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비과학적이므로 거짓이다.
⑤ 많은 학문 분야는 자신의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문이 제시한 과학의 요건인 보편적 재현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해하고, 과학적이지 않다는 판단과 거짓이라는 판단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과학적 주장: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되풀이하여 확인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예측을 내놓는 주장이다.
과학적이지 않음과 거짓의 차이: 어떤 주장이 보편적으로 재현되지 않아 과학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 주장이 곧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문은 뉴턴의 이론이 모든 장소와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재현 가능성을 지니므로 과학적이라고 설명한다.
② O — 지문은 증거가 불충분할 때 모른다고 말하며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과학적인 자세라고 설명한다.
③ O — 유명한 과학자의 이론이라도 실험 결과가 그 예측과 다르면 폐기된다는 지문의 설명에 부합한다. 따라서 뉴턴의 이론도 예측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기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비과학적이므로 거짓이다'이다. 혼자 있을 때만 성공하는 실험 결과는 다른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확인할 수 없어 보편적으로 재현 가능하지 않으므로 과학적이지 않지만, 그 사실만으로 결과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올바르게는 '그 결과는 보편적으로 재현되지 않아 비과학적이지만,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다.
⑤ O — 지문은 모두가 자신의 주장을 과학적이라 불리기를 바라며, 많은 학문 분야가 자신의 이름에 '과학'을 넣으려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라고 설명한다. 이는 자신의 합리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는 '과학적이지 않다'를 '거짓이다'로 바꾸어 두 판단을 동일시한 선지이다. 지문의 첫 사례에서도 보편적으로 재현되지 않는 주장을 과학적이지 않다고 할 수는 있지만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명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의 기준과 선지의 결론 강도를 대조한다. 재현 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는 '비과학적이다'라는 결론은 뒷받침하지만, 별도의 증거 없이 '거짓이다'라는 단정까지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암기 포인트

보편적 재현과 예측은 과학성의 기준이며, 비과학적이라는 판단이 곧 거짓이라는 판정은 아니다.

NoteBase

11.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많은 생태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자연을 위한 생태학은 은폐된 정치적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계에서의 공동선이란 인간의 대지인 지구를 번영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왜 우리는 지구를 번영하게 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은 생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생태학은 매우 이기적이면서도 인간 중심적이고 기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자연은 아주 종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등 재앙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고차원적인 공동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은밀한 목적에 의해 정의된다는 점입니다.
>
> 예를 들어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가 자연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건 참상입니다."라고 말하고, 생태학자들은 "우리는 보다 자연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숲 가까이에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독일의 한 생태학자는 이러한 경향이 생태학적으로는 완전한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 도시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오염 수준은 극도로 악화되지만, 일인당 오염 수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지역을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생태적으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대도시는 사실상 역설적으로 자연에게는 최선인 것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작은 자가 발전식 집에서 사는 생태적인 아이디어를 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면, 이러한 집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숲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생태학적 경향에 대한 저의 불신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최고선으로 제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주의를 초월하여 그것을 향해 노력한다고 할 때, 바로 이러한 특권들을 우리는 이미 은밀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① 태양열 자가 발전식 주택을 늘릴수록 더 넓은 면적의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

② 도시의 밀집도와 오염도가 높아지면 자연에는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③ 오늘날의 생태학은 인간의 이기주의와 무관하게 고차원적인 공동선을 실현하고 있다.

④ 자연을 위한 생태학은 모순적이게도 인간 중심적 태도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⑤ 숲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태적 삶의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겉으로는 자연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생태학적 주장이 실제로는 인간의 생존과 욕망을 중심에 둔 선택일 수 있다는 글의 역설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글쓴이가 비판하는 오늘날의 생태학은 자연 자체를 절대적 목적으로 존중하는 관점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하고 원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 자연을 관리하려는 인간 중심적 관점이다. 따라서 숲 가까이의 분산된 친환경 주택보다, 오히려 사람을 대도시에 밀집시켜 나머지 지역을 깨끗하게 남기는 방식이 자연에는 더 나을 수 있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태양열 자가 발전식 주택을 늘릴수록 더 넓은 면적의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이다. 글은 그런 집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이 더 늘고 숲은 사라진다고 한다. 올바르게는 태양열 자가 발전식 주택의 확산이 자연 보존 면적을 줄일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도시의 밀집도와 오염도가 높아지면 자연에는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이다. 글은 대도시의 일인당 오염 수준은 낮아지고 더 많은 지역을 깨끗하게 남길 수 있으므로, 오염된 고밀도 대도시가 역설적으로 자연에는 최선일 수 있다고 한다. 올바르게는 사람을 도시에 밀집시키는 것이 다른 자연 지역의 보존에 유리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인간의 이기주의와 무관하게 고차원적인 공동선을 실현하고 있다'이다. 글은 생태학적 공동선도 인간의 은밀한 목적에 의해 정의되며, 오늘날의 생태학이 인간 중심적이고 기계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한다. 올바르게는 오늘날의 생태학적 공동선에도 인간의 생존 욕구와 이기적 목적이 개입한다고 해야 한다.
④ O — 자연을 위한 생태학이 실제로는 인간의 생존과 욕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적이며, 자연 보존을 내세운 최고선의 제안에도 인간의 은밀한 목적과 특권이 숨어 있다는 글의 주장과 일치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숲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태적 삶의 방식'이다. 글은 많은 사람이 숲 가까이에서 살기를 원하면 주택이 늘고 숲이 사라지므로 이러한 경향을 생태학적으로 완전한 재앙이라고 한다. 올바르게는 숲 가까이의 분산 주거가 확대되면 자연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숲 가까이의 태양열 주택은 친환경적이고, 오염된 대도시는 반환경적이다'라는 일반적 인상에 기대면 ①·②·⑤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글은 개인 주택의 친환경성보다 전체 토지의 보존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인간이 말하는 공동선 뒤에 숨은 인간 중심적 목적을 드러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필자의 결론을 찾을 때는 사례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례가 뒷받침하는 공통 주장을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친환경적으로 보이는 분산 주거는 숲을 줄일 수 있고, 반환경적으로 보이는 고밀도 도시는 다른 자연을 남길 수 있다'는 대비를 통해 생태학의 인간 중심성과 숨은 목적을 강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겉은 자연 중심, 속은 인간 중심이다. 개별 생활의 친환경 이미지보다 자연 전체에 미치는 결과를 본다.

NoteBase

12.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긔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혜여 보소서

추성(秋城) 진호루(鎭胡樓) 밧긔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안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긔 불효인가 여기노라

- 윤선도, 「견회요」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② ㉠은 어버이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③ 지은이가 유배되어 있을 때 지은 작품이다.
④ 자연물과 화자를 동일시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⑤ ㉡을 통해 충과 효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윤선도의 「견회요」에 나타난 설의적 표현, 감정 이입, 창작 배경, 충효일치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설의적 표현은 묻는 형식을 취하면서 답을 요구하지 않고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감정 이입은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자연물에 옮겨 그 자연물도 같은 정서를 지닌 것처럼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 작품에서 외기러기는 부모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투영한 자연물이며, 마지막 수에는 부모에 대한 효와 임금에 대한 충을 하나로 보는 충효일치의 태도가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분별할 줄 이시랴', '그칠 뉘를 모르나다',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와 같은 물음 형식은 답을 요구하기보다 화자의 뜻과 정서를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이다.

② X — 'ㄱ은 어버이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외기러기는 어버이의 마음이 아니라, 유배지에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정서를 투영한 자연물이다.

③ O — 「견회요」는 윤선도가 유배 생활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읊은 작품으로, 유배 상황에서 지은 작품이라는 설명이 맞다.

④ O — 화자는 '외기러기'의 울음에 자신의 외로움과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입한다. 따라서 자연물인 외기러기와 화자를 동일시한 표현이 나타난다.

⑤ O — ㄴ은 임금을 향한 마음도 하늘이 내린 것이므로 임금을 잊는 일을 불효처럼 여긴다는 뜻이다. 부모에 대한 효와 임금에 대한 충을 같은 도리로 보는 충효일치가 드러난다.

오답 포인트

②의 함정은 '어버이 그린 뜻' 바로 뒤에 외기러기가 나오므로 외기러기를 어버이의 마음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데 있다. 외기러기는 그리움의 대상인 어버이가 아니라,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분신에 가깝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 속 자연물의 기능은 그 자연물이 누구의 정서와 처지를 닮았는지로 판단한다. 화자의 외로움이나 그리움이 자연물의 울음과 겹치면 자연물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며, 그리움의 대상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암기 포인트

외기러기=부모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분신, 마지막 수=충과 효의 일치이다.

NoteBase

13.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최근 독감 의심 환자의 1/2 가량은 신종 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자금 및 정보력을 가진 이들은 규제의 허점을 파고 들어 가는 시도를 한다.

③ 급격한 기상 변화로 중부 지방에 수십 년 만에 최대치의 눈이 쌓여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④ 태풍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8월 3일자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조정하였다.

⑤ 본사는 정보시스템 고도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인 바, 이 교육의 위탁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을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접미사, 의존 명사, 연결 어미, 합성 동사와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접미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하나의 합성 동사는 붙여 쓰되 그 뒤의 보조 용언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문장을 이어 주는 연결 어미는 어간에 붙여 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량’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1/2가량은’으로 붙여 써야 한다.

② X
‘파고들다’는 하나의 합성 동사이므로 ‘파고’를 띄면 안 된다. 또한 그 뒤에서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 ‘가다’는 띄어 쓰므로 ‘파고들어 가는’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년’은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서 시간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고, ‘만’도 시간이 얼마 동안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수십 년 만에’처럼 각각 띄어 쓴 것이 옳다.

④ X
날짜를 나타내는 ‘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8월 3일 자로’로 고쳐야 한다.

⑤ X
여기서 ‘-ㄴ바’는 앞의 내용을 배경이나 이유로 제시하며 뒤 문장에 이어 주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계획인바’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바’와 ‘자’를 언제나 의존 명사로 보고 띄기 쉽고, ‘가량’을 의존 명사처럼 띄기 쉽다. 특히 ⑤의 ‘바’는 ‘알 바가 아니다’의 의존 명사가 아니라 뒤 절을 잇는 연결 어미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을 접미사·의존 명사·어미·본용언·보조 용언으로 나눈 뒤 판단한다. 수량 뒤의 접미사 ‘가량’과 연결 어미 ‘-ㄴ바’는 붙이고, 날짜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자’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만’은 띄어 쓴다.

암기 포인트

접미사와 어미는 붙이고,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frac{1}{2}$가량, 계획인바 / 3일 자, 수십 년 만에.

NoteBase

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찰은 과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조지어 오키프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과학자들도 관찰력의 비결은 시간과 참을성에 있다고 믿었다. 곤충학자 카를 폰 프리슈는 자신의 관찰 능력이란 대단한 것은 아니고 단지 움직이지 않고 돌 틈에 몇 시간 동안 누운 채로 생물을 끈질기게 주시하는 힘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행인들이 무신경하게 못 보고 지나치는 순간, 세계는 참을성 많은 관찰자에게 그 놀라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벌이 추는 춤을 언어로 보고 해독한 성과 역시 그가 가진 관찰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물 심리학자 콘리트 로렌츠는 동물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아름다움을 감식할 수 있는 미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로 이것이 참을성이라는 미덕을 선물하게 되고 그로 인해 동물들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해 낼 때까지 끈질기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지질학자 너대니얼 셰일러는 학생 시절 한 가지 표본을 반복해서 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자꾸 보다 보니 눈에 잘 뜨이지 않던 것들, 이를테면 물고기의 양쪽 비늘의 배열이 다르다는 것 등이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참을성 있게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찾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고생물학자 엘윈 시먼스는 화석을 찾아내는 진짜 기술은 빠르고 예리한 시각적 식별력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화석을 찾는 작업이 얼핏 보기에 무작위적이고 평범한 지형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장구한 시간에 걸쳐 풍화된 돌들로 뒤덮인 이집트 사막에 이빨 화석 하나가 있다 한들 눈에 잘 뜨이지 않는다. 그건 마치 책 한 권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책장을 휙휙 넘기면서 찾는 일과 같다."

열대 조류 전문가인 생물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현장 탐사 작업을 하려면 먼저 자신이 느낀 빠르고 작은 움직임이 새의 움직임인지 나뭇잎의 움직임인지를 분간하는 능력을 익혀야 한다고 말한다. 숲에서 새를 추적하건, 들판에서 곤충을 관찰하건, 암석층에서 화석을 찾아내건 간에 이런 날카로운 관찰력이 가장 중요하다.

① 참을성 있는 관찰은 과학적 성과의 충분조건이다.
②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과학적 해석까지 도출해 낼 수 없다.
③ 목적을 가진 관찰이 과학적인 통찰로 이어질 수 있다.
④ 과학자에게는 예리한 시각적 식별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현장 탐사 작업 시 자신의 감각적 경험을 활용한다.

정답 1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관찰에 필요한 인내심과 목적의식·시각적 식별력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문의 '필요조건'을 선지의 '충분조건'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과학적 관찰은 대상을 끈질기게 보는 인내심뿐 아니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을지 정하는 목적의식과 미세한 차이를 알아보는 시각적 식별력을 함께 활용하여 의미 있는 질서와 통찰을 얻는 활동이다. 따라서 참을성은 과학적 성과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성과가 보장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과학적 성과의 충분조건'이다. 지문은 참을성만으로 관찰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무엇을 보는지와 무엇을 찾을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참을성 있는 관찰은 과학적 성과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② O — 셋째 문단에서 단순히 참을성 있게 보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으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을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목적 없는 관찰만으로 과학적 해석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③ O — 시먼스가 평범한 지형에서 질서를 찾아 화석을 발견한 사례는 무엇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지닌 관찰이 과학적 통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④ O — 지문은 오랜 시간 대상을 주시하는 인내심과 더불어 화석이나 생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가려내는 예리한 시각적 식별력이 과학자에게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⑤ O —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자신이 느낀 빠르고 작은 움직임을 근거로 그것이 새의 움직임인지 나뭇잎의 움직임인지 순간적으로 구별한다고 하였다. 이는 현장 탐사에서 자신의 감각적 경험을 활용하는 사례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지문 첫머리의 '관찰력의 비결은 시간과 참을성'이라는 내용을 과장하여 참을성을 '충분조건'으로 바꾼 선지이다. 그러나 뒤 문단의 '단순히 참을성 있게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역접 이후가 필자의 최종 판단이므로, 앞부분만 읽으면 함정에 빠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 속 '그러나', '단순히 ~만으로는 아니다'와 같은 전환·한정 표현을 먼저 확인한다. 선지가 지문의 한 요소를 '유일한 조건'이나 '충분조건'으로 확대했는지 살피고, 각 사례가 공통적으로 뒷받침하는 목적의식·식별력·인내심의 결합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과학적 관찰은 인내심만이 아니라 목적의식과 예리한 식별력까지 필요하다.

NoteBase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상에 발을 들인 첫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한다. 동떨어진 섬과 같은 아기는 없다. 신생아들조차 다른 사람의 표정에 반응한다. 실험자가 아기에게 혀를 내밀어 보이면 아기는 그를 흉내 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아기는 태어나 거울을 본 적이 없기에, 어른의 혀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기 입속의 그것에 대응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틀림없다.
>
> 아기들은 타인의 고통에도 반응한다. 어린 윌리엄 다윈이 생후 6개월 때 유모가 우는 척하자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동정심'을 보였던 일을 기억하는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도 우는 소리는 아기에게 불쾌하다. 그래서 그 소리에 아기들도 대체로 따라 울게 된다. 소음에 대해 말로 표현할 줄 몰라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아기들은 자기 울음소리보다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더 많이 운다. 반면, 볼륨은 같더라도 컴퓨터로 생성된 소음을 들을 때나 새끼 침팬지의 울음을 들을 때는 그만큼 울지 않는다.
>
> 다른 생명체들도 같은 종의 구성원이 괴로워하면 불쾌감을 느낀다. 배고픈 히말라야원숭이는 음식을 손에 넣기 위해 레버를 당겼을 때 다른 원숭이가 전기 충격을 받는다면 그 레버를 당기지 않으려 든다. 쥐는 공중에 매달린 다른 쥐를 내려주거나 물이 채워진 수조에 갇힌 쥐를 풀어주기 위해 막대를 누른다. 그리고 원숭이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제공해 주는 막대를 눌렀을 때 다른 쥐가 충격을 받으면 그 막대를 누르는 행동을 멈춘다.

① 신생아는 갓 태어났으므로 아직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한다.
② 아기들은 의식적 인지를 통해 주변 어른들의 행동에 반응한다.
③ 아기와 달리 쥐는 동족의 괴로움에 공감하지 못한다.
④ 동족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도는 히말라야원숭이가 쥐보다 더 크다.
⑤ 아기는 사람의 소리보다 다른 생명체의 소리에 덜 반응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아기와 동물이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반응하는 양상을 지문의 구체적 근거와 일치시키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공감은 다른 개체의 감정이나 고통에 반응하는 현상이다. 지문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표정과 울음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원숭이와 쥐도 동종의 고통에 반응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아기는 자기 울음이나 인공 소음·다른 생명체의 울음보다 다른 아기의 울음에 더 크게 반응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한다'이다. 신생아도 다른 사람의 표정에 반응하므로,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을 보인다고 고쳐야 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의식적 인지'이다. 지문은 아기가 말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표정과 울음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고 설명하므로, '본능적 반응을 통해 주변 사람의 감정에 반응한다'고 고쳐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쥐는 동족의 괴로움에 공감하지 못한다'이다. 쥐는 다른 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막대를 누르거나, 다른 쥐가 충격을 받으면 음식 막대를 누르던 행동을 멈추므로 동족의 괴로움에 반응한다고 고쳐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히말라야원숭이가 쥐보다 더 크다'이다. 지문은 두 동물 모두 동족의 고통에 반응한다는 사례만 제시할 뿐 공감의 정도를 비교하지 않으므로, '히말라야원숭이와 쥐 모두 동족의 고통에 반응하며 그 정도의 우열은 알 수 없다'고 고쳐야 한다.
⑤ O — 아기는 다른 아기의 울음에는 자기 울음보다 더 많이 울지만, 컴퓨터 소음이나 새끼 침팬지의 울음에는 그만큼 울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의 울음소리보다 다른 생명체의 소리에 덜 반응한다는 설명이 지문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아기의 반응을 '의식적 인지'로 해석하거나, 원숭이와 쥐의 사례를 근거 없이 정도의 비교로 확대하는 것이 함정이다. 지문은 아기의 반응을 본능적이라고 명시하며 동물 사이의 공감 정도에는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 비교 대상과 반응의 원인을 지문 표현에 대응시킨다. 지문이 존재 여부만 설명했으면 정도의 우열을 추론하지 않고, '본능적'과 '의식적'처럼 반대되는 표현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아기의 공감 반응은 본능적이며, 다른 아기의 울음에 특히 크게 나타난다. 동물 사례는 공감의 존재를 보여 줄 뿐 종 사이의 우열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NoteBase

16. 다음 글과 가장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는 것은?

> 십년(十年)을 경영(經營)ᄒᆞ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여 내니
> 나 ᄒᆞᆫ 간 ᄃᆞᆯ ᄒᆞᆫ 간에 청풍(淸風) ᄒᆞᆫ 간 맛져 두고
> 강산(江山)은 들일 ᄃᆡ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 송순, 「십년을 경영하여」 -

① 산은/ 구강산(九江山)/ 보랏빛 석산(石山)//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 박목월, 「산도화」 -

②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윤동주, 「서시」 -

③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

④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港口)로 떠도는 구름.
- 정지용, 「고향」 -

⑤ 사랑한다는 말 이 한마디는/ 내 이 세상 온전히 떠난 뒤에 남을 것 // 잊어버린다. 못 잊어 차라리 병이 되어도/ 아 얼마나한 위로이랴 /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 조지훈, 「민들레꽃」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연을 벗 삼아 소박하게 살아가는 데서 느끼는 만족과 흥취가 어느 작품에 공통으로 나타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시문은 초가삼간을 지어 자신과 청풍·명월이 함께 머물게 하고, 집 안에 들일 수 없는 강산은 둘러 두겠다고 한다. 자연을 가까운 벗처럼 여기며 자연 속 삶을 즐기는 자연 친화적 태도와 풍류가 핵심 정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산도화가 피고 암사슴이 물에 발을 씻는 봄 산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그린다. 자연을 벗 삼아 함께 살아가는 만족과 흥취보다는 인적 드문 산속의 정적이고 청정한 분위기가 중심이다. 제시문과 같은 정서로 고치면 '자연을 벗으로 삼아 자연 속 삶을 즐기는 흥취'라고 해야 한다.

② X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고자 하는 화자의 자기 성찰과 도덕적 고뇌가 드러난다. 제시문의 자연 친화적 만족과는 다르다. 제시문과 같은 정서로 고치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만족'이라고 해야 한다.

③ O
구름과 강냉이를 소재로 한 전원적 공간에서 상대에게 함께 와서 먹자고 하며, 삶의 이유를 묻는 말에는 웃음으로 답한다. 자연 속 소박한 삶을 즐기고 만족하는 태도가 제시문의 자연 친화적 풍류와 가장 유사하다.

④ X
돌아온 고향이 더는 예전의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는 데서 오는 상실감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중심이다. 제시문과 같은 정서로 고치면 '자연 속 현재의 삶을 흡족하게 누리는 정서'라고 해야 한다.

⑤ X
사랑하는 이를 잃은 뒤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슬픔과, 상대의 맑은 눈을 통한 위로가 중심이다. 제시문과 같은 정서로 고치면 '청풍과 명월을 벗 삼아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이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 모두 자연 풍경을 제시하므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①은 고요한 봄 산의 정경을 묘사하는 데 중심이 있고, ③은 자연 속 소박한 생활을 즐기며 만족하는 화자의 태도까지 드러나 제시문과 더 가깝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서 비교에서는 자연 소재의 공통성만 보지 않고, 그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까지 확인한다. 제시문처럼 자연을 벗으로 여기고 그 속의 삶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전원생활의 즐거움과 자족감이 함께 드러난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청풍·명월을 벗 삼음은 자연 친화, 강산을 둘러 둠은 자연 속 풍류와 자족을 뜻한다.

NoteBase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말이 있다.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분산', '이산', '흩어진 사람들'을 뜻한다. 전에는 '팔레스타인 밖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전쟁이나 식민지화 등으로 인해 고국을 등져야 했던 백성과 그 후손들의 총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우리 민족의 경우에도 이른바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해외 동포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근·현대사의 고통스러웠던 전개 과정에서 원치 않게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지로 떠나야 했던 이들과 그 후손을 들 수 있다.
>
> 어떤 공동체에든 언어 사용의 문제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디아스포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일찍이 해외의 우리 동포들은 공동체 내부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공식적이고 대외적인 차원에서는 한국어가 아닌 그 나라 말을 사용해야 하는 다중 언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주 1세대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생존을 위해 현지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공동체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면서 정서와 감정, 문화와 사상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다중 언어 사회의 언어 문제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가 된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국제결혼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 온 많은 외국인들이 맞닥뜨린 다중 언어 상황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①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다.

②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는 언어 사용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③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④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언어 교육을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⑤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겪는 언어 사용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디아스포라의 의미와 다중 언어 사회의 문제에 관한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디아스포라는 전쟁이나 식민지화 등으로 고국을 떠나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과 그 후손을 뜻한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 공동체를 가리키며, 세대교체와 현지 언어 수용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는다. 글은 이러한 문제와 국내 외국인의 언어 문제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글은 근·현대사의 고통스러운 전개 과정에서 러시아 등지로 떠난 사람들과 그 후손을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사례로 제시한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도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O — 글은 언어 사용 문제가 공동체의 정체성과 맞물린 중요한 문제라고 직접 설명한다.
③ O — 이주 1세대의 수가 줄고 생존을 위해 현지 언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해외 한민족 공동체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제시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이다. 글은 해외 우리 민족의 언어 교육 책임을 한국 정부에 부여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다중 언어 사회의 문제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정확히 파악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⑤ O — 글은 국제결혼이나 취업으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겪는 언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주 노동자는 취업을 이유로 온 외국인에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해외 동포의 한국어 능력 저하라는 문제 상황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교육 책임'까지 확대하여 추론한 선지이다. 글의 결론은 특정 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문제 인식과 공동 해결 태도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선지의 주체와 책임 범위를 본문과 대조한다. 본문이 '우리 모두'라고 한 내용을 '한국 정부'의 의무로 바꾼 것은 근거 없는 확대이므로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디아스포라는 고국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과 그 후손이며, 다중 언어 문제의 해법은 특정 기관의 단독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동 인식과 해결이다.

NoteBase

18. (가)~(마)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영역 수호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몇 주간에 걸친 세미나나 교육 과정에서 벌어지는 좌석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평생교육원이 주최하는 '코바늘뜨기 고급반 과정'의 첫날, 몇몇 수강생은 작심한 듯 눈에 불을 켜고 강의실에 들어오고, 다른 몇몇은 약간 쑥스러워하며 들어온다.

(가) 그냥 어떤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 무리에 속하는지 여부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지칭되는 명칭이 치환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그 위상이 애매해진다. 텔레비전의 토크쇼를 보더라도 개성 있는 패널들로 채워지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제작진의 세심한 의도 아래 구성된 것이다.

(나) 일주일이 지나 수강 둘째 날이 왔다. 수강생들의 움직임은 확연히 빨라졌다. 강의실에 입장하자마자 일주일 전에 앉았던 바로 그 자리를 향해 총총걸음으로 돌진한다. 이름표가 붙은 책상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신속정확하다. 배려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간혹 이렇게 묻기도 한다. "헛갈려서 그러는데요, 저번 주에 이 자리가 제 자리였나요?" 사실 코바늘뜨기 과정에서 누가 어디 앉든 무슨 문제가 될까?

(다) 이제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행동이 굼뜨거나 소심한 수강생들은 남아 있는 자리에 그냥 앉는 경우가 많다. 착석하자마자 어깨에서 벗겨진 외투는 의자에 입혀진다. 이 자리에 임자 있다는 표시다. 여성들은 의자 한쪽에 핸드백을 걸어놓기도 한다.

(라) 인간은 낯선 사물, 낯선 사람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친숙해지고 싶어 한다. 위의 경우에서는 새로운 강의실과 수강생들이 될 것이다. 조직심리학을 연구하는 외르크 펠페에 따르면, 인간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어느 무리에서든 최대한 신속하게 자기 자리를 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마) 그런데 여기서 모순에 부딪힌다. 무리의 소속감을 원하는 마음과 개인으로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강의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첫날 앉았던 자리를 차지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즉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맨 앞줄 환등기 오른쪽에 앉은 사람' 또는 '창가 맨 뒷줄 남자'로 차별화되어 각인되고 싶어 한다.

① (가) - (마) - (나) - (다) - (라)
② (다) - (나) - (라) - (마) - (가)
③ (다) - (라) - (나) - (마) - (가)
④ (라) - (나) - (다) - (마) - (가)
⑤ (라) - (나) - (마) - (다) - (가)

정답 2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간의 흐름, 앞 문장을 받는 지시 표현, 문단 사이의 의미 관계를 근거로 글의 순서를 정하는 문제이다. 특히 '일주일이 지나', '그런데 여기서', '이에 따라'와 같은 연결 표지가 앞뒤 문단의 관계를 드러낸다.

올바른 순서

(다) → (나) → (라) → (마) → (가)

1. (다) — 첫날 강의실에 들어온 수강생들이 남은 자리에 앉고 외투나 핸드백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설명한다.
2. (나) — '일주일이 지나 수강 둘째 날'이 되자 수강생들이 첫날 앉았던 자리로 빠르게 돌아가는 변화를 보여 준다.
3. (라) — 앞에서 관찰한 현상을 낯선 사물과 사람에게 빨리 친숙해지고 자기 자리를 정하려는 인간의 욕구로 설명한다.
4. (마) — 친숙한 무리에 속하려는 욕구와 그 안에서 개인으로 구별되고 싶은 욕구가 함께 나타나는 모순을 분석한다.
5. (가) —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자리로 지칭되는 사람으로 구별되고 싶다는 심리를 부연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왜 이 순서인가: (다)가 첫날의 착석 행동을 제시한 뒤 (나)의 '일주일이 지나'가 둘째 날로 시간을 진행시킨다. (라)의 '위의 경우'는 이 두 문단에서 관찰한 현상을 받아 일반 원리로 설명하고, (마)의 '그런데'는 그 원리 안의 모순을 제시한다. 이어 (가)는 (마)의 '그냥 어떤 사람'과 '차별화'를 받아 그 의미를 확장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를 첫머리에 두면 '그냥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과 개인을 구별하려는 심리가 무엇에서 나온 것인지 앞선 설명이 없다. 또한 (마)의 모순 분석이 구체적 착석 현상보다 먼저 나와 흐름이 어긋난다. 틀린 배열 '(가) → (마) → (나) → (다) → (라)'는 '(다) → (나) → (라) → (마) → (가)'로 고쳐야 한다.

② O — 첫날의 착석 행동 (다), 일주일 뒤 둘째 날의 변화 (나), 그 현상에 대한 일반적 설명 (라), 소속과 차별화 욕구의 모순 분석 (마), 개인의 위상에 대한 부연 (가)의 순서가 자연스럽다.

③ X — (라)의 '위의 경우'는 첫날과 둘째 날의 자리 행동을 모두 보여 준 (다)·(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나) 끝의 물음에 대한 설명이 (라)에서 이어지므로 (라)를 (나)보다 앞에 둘 수 없다. 틀린 배열 '(다) → (라) → (나) → (마) → (가)'는 '(다) → (나) → (라) → (마) → (가)'로 고쳐야 한다.

④ X — (라)의 '위의 경우'는 뒤에 나올 사례를 예고하는 말이 아니라 앞서 제시된 자리 행동을 가리키므로 (다)·(나) 뒤에 와야 한다. 또한 첫날의 자리 차지 장면인 (다)가 둘째 날을 나타내는 (나)보다 앞선다. 틀린 배열 '(라) → (나) → (다) → (마) → (가)'는 '(다) → (나) → (라) → (마) → (가)'로 고쳐야 한다.

⑤ X — (마)의 '그런데 여기서 모순에 부딪힌다'는 (라)에서 제시한 친숙함과 소속의 욕구를 받은 뒤, 개인으로 구별되고 싶은 상반된 욕구를 제시한다. 따라서 (마) 뒤에 첫날의 구체적 행동인 (다)를 놓을 수 없다. 틀린 배열 '(라) → (나) → (마) → (다) → (가)'는 '(다) → (나) → (라) → (마) → (가)'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다)와 (나)의 시간 관계, 그리고 (나)와 (라)의 설명 관계이다. (다)는 첫날 자리를 잡는 장면이고 (나)는 '일주일이 지나' 맞은 둘째 날이므로 (다)가 먼저이다. 또한 (나) 끝의 '누가 어디 앉든 무슨 문제가 될까?'라는 물음은 (라)의 인간 심리에 관한 일반 원리로 설명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배열 문제에서는 먼저 시간 표지로 큰 흐름을 잡고, 다음으로 '위의 경우', '여기서', '이에 따라'와 같은 지시·접속 표현이 가리키는 앞 문단을 찾는다. 마지막에는 반복되는 핵심어가 '현상 제시 → 분석 → 의미 확장'의 흐름을 이루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첫날 (다) → 둘째 날 (나) → 원리 (라) → 모순 (마) → 부연 (가)이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9.~문20.]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가 개별적,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인간, 사회,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다.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개인의 사적인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비가 이웃, 사회, 환경 등 더 넓은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윤리적 소비는 구매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상생활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간소한 삶을 지향하며 절제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인간, 사회,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는 소비 실천 행동을 의미한다.

최근 산업화 이후 경쟁적인 경제 발전으로 인해 지구의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의 문제가 등장함에 따라 지속 가능 발전이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하는 인류 공통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윤리적 소비는 제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비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지구 환경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소비 실천 행동이므로,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윤리적 소비는 현대 소비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인 소비 행동으로 환경오염, 빈부 격차, 삶에 대한 불만족 등의 현대 소비 사회의 주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소비 행동이며,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비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구환경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천 행동이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윤리적 소비자는 다양한 실천 행동을 통해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기업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비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는 운동을 하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옳은 것은?

① 윤리적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② 윤리적 소비는 어떠한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었는가?
③ 산업화 이후 지구 환경에 나타난 변화는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④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⑤ 특정한 기업의 성장 전략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도덕적인 책임을 요구하는가?

정답 3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윗글에 직접 제시된 정보나 그 정보로 분명하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묻는 질문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윤리적 소비는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이웃·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소비 행동이다. 글은 산업화 이후의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부각했고, 그 결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의 실천 의지가 높아졌다고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글에는 윤리적 소비의 확산에 필요한 정책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틀린 표현은 '필요한 정책 방안'이며, 글에서 답할 수 있게 고치면 '윤리적 소비란 무엇인가?'가 된다.

② X
글은 윤리적 소비가 어떤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어떠한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었는가'이며, 글의 내용에 맞게 고치면 '윤리적 소비가 주목받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가 된다.

③ O
둘째 문단에서 산업화 이후 경쟁적 경제 발전으로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문제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이를 실천하려는 소비자의 의지가 높아졌다고 밝힌다. 따라서 지구 환경의 변화가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을 글에서 찾을 수 있다.

④ X
글은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이 지닌 구체적인 특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이며, 글에서 답할 수 있게 고치면 '윤리적 소비자는 어떤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가?'가 된다.

⑤ X
글에는 특정 기업의 성장 전략이나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책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틀린 표현은 '특정한 기업의 성장 전략'과 '어떠한 도덕적인 책임'이며, 글의 내용에 맞게 고치면 '윤리적 소비자의 선택은 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가 된다.

오답 포인트

①, ②, ④, ⑤는 모두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말이어서 그럴듯하지만, 정책·사회운동·제품의 종류·특정 기업의 전략은 본문에 없는 정보이다. 관련 주제인지가 아니라 본문에 답의 근거가 실제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질문의 핵심 의문어와 대상에 대응하는 문장을 본문에서 찾는다. 직접 대응하는 문장이 있거나 본문의 인과관계로 답이 확정되면 선택하고, 주제만 비슷할 뿐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면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내용 일치형 질문은 ‘주제의 관련성’이 아니라 ‘본문 근거의 존재’로 판단한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9.~문20.]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가 개별적,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인간, 사회,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다.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개인의 사적인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비가 이웃, 사회, 환경 등 더 넓은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윤리적 소비는 구매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상생활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간소한 삶을 지향하며 절제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인간, 사회,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는 소비 실천 행동을 의미한다.

최근 산업화 이후 경쟁적인 경제 발전으로 인해 지구의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의 문제가 등장함에 따라 지속 가능 발전이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하는 인류 공통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윤리적 소비는 제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비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지구 환경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소비 실천 행동이므로,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윤리적 소비는 현대 소비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인 소비 행동으로 환경오염, 빈부 격차, 삶에 대한 불만족 등의 현대 소비 사회의 주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소비 행동이며,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비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구환경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천 행동이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윤리적 소비자는 다양한 실천 행동을 통해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기업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비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는 운동을 하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윤리적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를 결정한다.

② 윤리적 소비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소비 행위에서 절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다.

③ 윤리적 소비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와 환경에 책임을 다하려는 소비 행동이다.

④ 윤리적 소비는 환경오염이나 빈부 격차 등 현대 소비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⑤ 윤리적 경영 여부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다.

정답 5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지문에 제시된 윤리적 소비의 개념·실천 범위·사회적 효과와 각 선지의 표현이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특히 지문의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단정한 표현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개인적·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비가 이웃·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다. 이는 구매할 때의 선택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까지 포함한다. 윤리적 소비자는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거나 비윤리적 기업의 제품을 불매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문은 소비자가 개인의 사적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비가 이웃·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신의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② O — 지문은 윤리적 소비가 구매 의사 결정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실천이라는 내용은 적절하다.

③ O — 첫 문단은 윤리적 소비를 소비자가 개별적·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인간·사회·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와 환경에 책임을 다하려는 행동이라는 내용은 적절하다.

④ O — 마지막 문단은 윤리적 소비가 환경오염, 빈부 격차, 삶에 대한 불만족 등 현대 소비 사회의 주요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⑤ X — 틀린 부분은 '기업의 존재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다. 지문은 윤리적 소비자가 윤리적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거나 비윤리적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여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윤리적 경영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 기업의 존폐를 결정한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윤리적 경영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⑤는 지문의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경영이 필요하다'를 '기업의 존재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확대하였다. '영향을 줄 수 있다'와 '존폐를 결정한다'는 강도가 다르므로, 결정적·반드시·유일한 같은 단정적 표현이 지문에 실제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핵심 서술어와 범위 표현을 지문의 대응 문장과 대조한다. 지문이 가능성이나 영향을 말했는데 선지가 필연성이나 결정성을 말하면 의미가 과장된 것이므로 틀린 선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윤리적 소비는 '사회·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와 절제·나눔의 생활 실천'이며,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업의 존폐를 결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NoteBase